

# “꿈 조리하고 행복 담아내는 요리는 내운명”

룩셈부르크 요리 월드컵 대회 금메달 획득 호남대 오명진 씨

“자신의 요리에 철학과 자연을 담는 프랑스의 미셸 브리와 같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 요리대회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제11회 룩셈부르크 요리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호남대 오명진(24·조리영양학부 3년)씨.

오씨는 지난달 20~24일까지 4박5일간 열린 요리 월드컵에서 한식과 양식을 접목한

‘크레페로 감싼 피칸 나무로 훈제한 연어’, ‘여러가지 향을 감미한 해산물 페리’ 등의 요리로 뷔페전시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요리를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오씨는 중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사의 꿈을 가졌다. 하지만 학업에 열중하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조리과학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접어

야만했던 오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 다니며 요리를 배웠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학원에서 매일 4~5시간씩 요리를 배우면서 꿈을 키워나간 오씨는 이후 한식과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호남대 조리 영양학부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요리공부를 시작했다.

국내 대회에서 입상을 하며 두각을 나타낸 오씨는 지난 2007년 호주 시드니 국제요

리경연대회 뷔페전시와 개인 라이브 요리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그랑프리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씨는 자신들의 전통 요리에 자부심이 강한 서양인들의 편견에 막혀 ‘이방인’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양식의 본고장인 프랑스 등 외국의 원서를 읽기 위해 직접 불어와 영어를 배웠다.

국제대회에서 세계적인 요리사들과 경쟁하고 싶은 오씨는 500~700만원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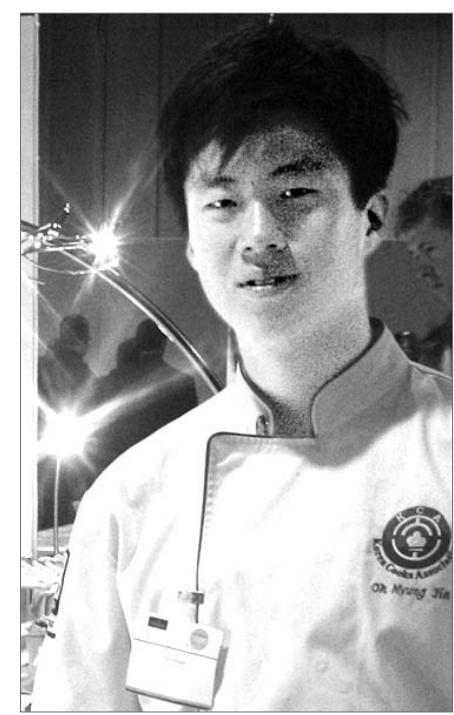
대회 참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이면 식당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요리대회에 참가해 세계적인 요리사들과 실력을 겨루며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시험하고 싶습니다. 요리를 할 때면 항상 흥분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행복해지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씨는 지금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4년마다 열리는 2012년 요리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오씨의 최종목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이다.

“요리는 단순히 재료와 기술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음식과 접목시킬 수 있을 때 최고의 요리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부, 지역문화발전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윤석년 교수 외에 신임 위원은 우병동 경성대 교수, 김동규 건국대 교수, 윤주태 매일신문 객원논설위원, 이승선 충남대 교수, 임영호 부산대 교수,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 홍문기 한세대 교수, 홍은희 명지대 교수 등이다.

광주의 사회 저소득 아동 후원 1000만원



이정호 광주시의사회장은 연말을 맞아 최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초록우산 산타원 정대 발대식에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최삼영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광주·전남디자인협회장에 이창호 교수



이창호 대불대 교수가 20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디자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변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디자인 인재육성, 협회 활성화에 힘력을 기울여 지역 디자인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중국양주대학교 교환교수, 광주시 흥보관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박물관 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총장, (사)아시아문화 콘텐츠 개발원 이사, 대불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인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조영조

## “추억의 보리개떡 맛을 아시나요”

해남 옥동 떡방앗간 박진희씨 재현



해남 황산면의 한 떡방앗간에서 추억의 보리개떡을 재현해 화제다.

주인공은 황산면 옥동마을 옥동 떡방앗간 박진희(50)씨로 보리개떡을 재현, 인근 지역에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박씨가 보리개떡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년여 전. 수십 년 단골이 어린 신들이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떡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보리개떡을 재현해 냈다.

이 보리개떡은 기존의 보리와 막걸리 외에도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 유산균을 첨가했다고 한다.

또 해남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 건강까지 생각한 떡을 만들어야 한다는 박씨의 고집 탓에 국산 보리를 어렵게 공수해 사용하고 있다.

시커먼 옛 보리개떡에 비하면 먹음직한 색깔에 부드러운 맛은 느낌도 일품이다.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주문이 상당하다고 한다.

2대째 같은 자리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박씨의 떡 만드는 솜씨는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유명하다.

5년 전 개발한 단호박 떡은 해남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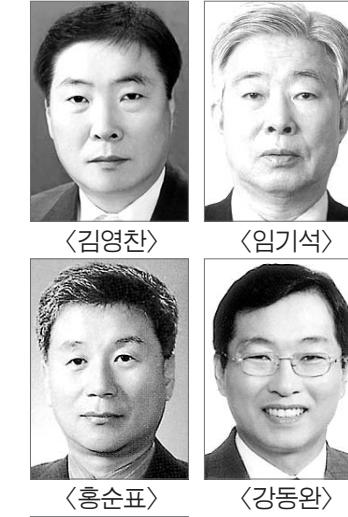
아니라 인근 도시와 서울에서까지 주문이 이어지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다. 또 직접 재배한 자색 고구마로 만든 떡 또한 같은 방법을 사용해 만들 어지기 때문에 손꼽히는 인기품목이다. 보리개떡의 가격은 한판(35cm × 35cm)에 1만원. 단호박 떡과 자색 고구마 떡도 몇 년째 한 되 1만5000원에 팔고 있다.

단골이 된 시골 어르신들에게 떡 가격이 부담될까 싶어서라고 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김영찬·임기석·홍순표·강동완·이귀종씨

## ‘2010 자랑스러운 조대인상’



‘2010 올해의 자랑스러운 조대인상’ 수상자로 정치·행정부문에 김영찬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제부문에 임기석 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학술·문화부문에 홍순표 전 조선대학교교원장, 사회·봉사부문에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공로부문에 이귀종 동일베트남엔지ニア링(주) 대표가 선정됐다.

김영찬(약학 26회)씨는 광주지방 안전처장 등 4개 지방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했다. 임기석(법학 18회)씨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아시아 신용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소액금융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홍순표(의학 26회)씨는 조선대학교 병원장(2003~2007),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2007~2009) 등을 지내며 내과학 발전에 공헌했다. 강동완(치의학 29회)씨는 조선대학교병원장 및 치과대학장을 역임하며 광주 글로벌치과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이귀종(기계설계공학 33회)씨는 조선대학교 베트남동창회를 결성하

여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조선대학교 세종학당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조선대학교동창회(회장 신홍수)는 ‘2010년도 조대인의 밤’ 송년행사를 23일 오후 6시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5층에서 대학관계자 및 원로선배 등 동문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故 한주호 준위 ‘사회적 의인’ 선정

천안함 실종장병을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가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고(故) 한주호 준위 등 7명을 ‘2010년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하고 20일 생보재단에서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故) 한주호는 해군 특수전(UDT) 소속 잠수사로, 지난 3월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의 실종자 구조작업을 펼쳤다 순직했다. 이밖에 지난달 삼성동의 한 릴딩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구출한 남기형(41)씨와 일본에서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한 이준(32)씨 등도 의인으로 선정됐다. 이날 생보재단은 선정된 7명의 사회적 의인에게 모두 4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생보재단 이시협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한 분들이 인정받도록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시원, 한국 모터스 감독상·인기상



‘한류 스타’ 류시원(38)이 국내 자동차 경주대회를 종결하는 2010 한국 모터스 포츠 대상(주최 지피코리아) 시상식에서 감독상, 인기상을 석권했다.

20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류시원은 두 번이나 시상대에 올랐다.

연예인 수상자는 공로상이나 인기상만 받기 마련이지만 류시원은 감독상을 받아 더 눈길을 끌었다.

류시원은 2009년 5월 EXR팀106이라는 레이싱 팀을 창단해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북광주자동차검사소, 이동시설에 생필품



교통안전공단 북광주자동차검사소(소장 박하준)는 지난 19일 오후 광산구 비아동 난지택집을 찾아 시설 보수작업과 쌀, 라면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교통안전공단 북광주자동차검사소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향우회

▲정영재·나길례씨 장남 성운군 이상율(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집행위원장)·최연자씨 차남 지야양=25일(토) 오후 2시 30분 여수 포에버웨딩컨벤션 2층(행복홀)

▲최형태(전 전남도교육청 중등 교육과장)·성정자씨 차남 영권(사업부)군 장준표·배양자(전남도 복지 여성국장)씨 장녀 윤화양=26일(일) 오후 1시40분 광주 상록웨딩홀 3층(부궁화홀)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광 박선태,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 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여가

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빌링장 건물 1층. 062-651-1175~6.

▲‘미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 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링장 1층·인 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미사시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후 10시), 탁구교실(화·목·오후 10시), 영어 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기초부 터 학습, 물권, 체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석, 현장답사 직장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교양.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헌글과정 자

원봉사(여)교사 및 학생=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경정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0-0032.

▲한국미사시회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전통문화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 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경정교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기초부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부음

</